

고흥 과역초, 교육가족이 함께 하는 벚꽃 작은 음악회 개최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더 의미있는 음악회 운영 학생회 주관, 전교 학생회장· 부회장이 사회 맡아 진행

고흥 과역초등학교(교장 김연자)는 지난 1일 전교생이 함께 '벚꽃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벚꽃 작은 음악회는 매년 벚꽃이 만개하는 시기에 아름다운 벚꽃을 배경으로 실시되어 과역교육가족 모두에게 봄날의 큰 즐거움으로 자리잡아 오고 있다. 올해는 학부모님들이 함께 참석하여 더 의미있는 음악회가 되었다.

벚꽃 작은음악회는 전교학생회에서 행사 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행사계획부터 홍보, 진행까지 운영하여 학생자치회의 역할을 킁 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올해 벚꽃 작은 음악회는 유치원과 도유반

의 '벚꽃 엔딩' 노래와 울동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5학년 학생의 '종이접기'를 비롯한 신나는 노래 그리고 피아노와 바이올린 연주 등 다양한 무대로 음악회를 빛냈으며 관람하는 학생들과 교직원, 학부모님들의 응원과 때창 등이 함께 어우러져 음악회의 열기를 한껏 끌어올렸다.

학생회에서 주관하고 전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되는 벚꽃 작은 음악회는 해가 갈수록 학생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과역초등학교 전교학생회장 안OO 학생은 "음악회를 홍보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즐겁게 참여하고 기를 펼칠 수 있는 음악회가 진행되어서 뿌듯하다. 가을에도 한번 더 진행해 보면 싶다"고 전했다. 벚꽃이 영화같이 아름다웠고 음악회 내내 힐링의 시간이었다. 아이가 음악회에 나가려고 피아노 연습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니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과역초 교장(김연자)은 "교육가족 모두가 자기일처럼 준비를 해주신 덕분에 행복하고 멋진 음악회를 즐길 수 있었다.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무대에 나가 함께 노래하고 즐기는 모습은 정말 축제 같았다. 특히 학생 자치회에서 주관하여 행사가 진행되어 더 의미있었던 시간이었다."고 하였다.

4월, 완연한 봄날의 기운을 듬뿍 느낄 수 있는 벚꽃 작은 음악회를 통해 과역초등학교



교육가족 모두 자율 창의 협력으로 참사를 가꾸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기를 기

대해본다.

고흥=기동취재본부

광양 광영고, 2024 체육한마당 실시



광양 광영고등학교(교장 민연옥) 학생들이 2024학년도 체육한마당을 실시하였다. 4일부터 5일까지 이틀간 광영고등학교 예술

체육부장 체육교사 신민철과 학생생활안전부장 체육교사 박상현은 학생회 학생들과 함께 '함께 웃고, 함께 즐기는 체육한마당'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체력 증진을 도모하고,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스포츠맨십을 발휘하며, 존중과 배려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행사는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학생회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고 학생이 주도하는 체육 한마당으로 운영하였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장흥교육청, '2024. 공생의 길 물길·숲길 걷기 프로젝트' 실시

장흥 탐진강 일대 '탐진강 물길걷기 행사' 운영



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순미)은 '2024. 공생의 길 물길·숲길 걷기 프로젝트'의 그 시작을 알리는 '탐진강 물길걷기 행사'를 지난 6일

장흥 탐진강 일대에서 진행하였다. '탐진강 물길걷기' 행사는 학생, 교원이 참여하여 우리 고장을 가로지르는 탐진강의 아름

다운 수생태계를 직접 살펴보고 생태에 대한 보호 의지를 다지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졌다.

참가자들이 물길을 걸으며 탐진강의 아름다움을 눈과 사진으로 담아내어, 탐진강의 자연을 더욱 소중히 하고 보존해야 한다는 의지를 다질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번 걷기 행사에 참여한 장흥서초 '이OO 학생은 "평소에도 탐진강 주변을 가족과 걸거나 둘러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행사에 참여하면서 우리 고장의 환경과 자연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탐진강의 아름다움이 마음속 깊게 각인됨을 느꼈다. 앞으로 탐진강의 자연 생태를 더 보전하고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였다."라고 참여한 소감을 밝혔다.

장흥=김도영기자

무안교육청, 어울림 오케스트라 개강

무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치) 특수교육지원센터는 6일, 무안교육지원청에서 「2024.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 개강식을 가졌다.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는 무안을 거점으로 인근 지역의 장애학생 및 학부모로 구성되었다.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는 오케스트라이다.

무안 어울림 오케스트라는 총 8명의 강사진 및 오케스트라 악기 6개 영역(바이올린, 첼로, 클라리넷, 트럼펫, 플루트, 타악기)으로 구성되었으며 매주 토요일 2시간씩(10:30-12:30) 운영한다. 다수가 함께하는 연습과 공연을 통해 장애학생의 협력적 태도를 신장하고 긍정적 자아개념 함양 및 자신감 향상을 기대한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참여하는 학부모는 "올해도 오케스트라에 참여하게 되어 기쁜 마음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아이의 진지한 모습을 생각하면 귀여운 마음에 벌써 웃음이 지어 집니다. 오케스트라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여 아이가 한 단계 성장하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전남교육청, 정주형 인재양성 위한 직업교육 워크숍 실시

지역 산업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내실화 및 정책 방향 논의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이 5일 여수 히든베이호텔에서 '2024 전남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워크숍'을 열고, 지역 정주형 인재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내실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남 45개 직업계고 교장 및 특성화부장, 교육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지역 산업현장 수요에 걸맞은 학교 직업교육의 방향성을 논의했다.

워크숍에서는 △ 중등 직업교육 정책 방향과 발전 주제 특강 △ 2023년 실시한 재구조화 지원사업 및 현장실습 운영학교 성과 공유 △ 2024 직업교육 추진 계획 안내 및 의견수렴 등이 진행됐다.



변용일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